

국립군산대, 혁신·도약의 3년

“다함께 다시 새롭게”

이장호 총장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 이 총장, 대학발전기부 3000만원 기부

국립군산대학교는 17일 이장호 총장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 구성원이 함께 모여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장호 총장은 대학 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해, 취임 이후 총 6,000만원을 기부하게 됐으며, 강태성 국립군산대학교발전위원회장이 이장호 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17일 이장호 총장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장호 총장은 대학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장호 총장은 대학 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해, 취임 이후 총 6,000만원을 기부하게 됐으며, 강태성 국립군산대학교발전위원회장이 이장호 총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17일 이장호 총장 취임 3주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장호 총장은 대학발전기부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2022년 3월, 제9대 총장으로 취임 이후 이장호 총장은 과감한 교육혁신을 추진하며 대학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신입생 총인원은 2022년 83.3%에서 2025년 100%로 수직상승하고, 취업률 역시 전국 대학교 평균 상승폭인 2.2%보다 3배 높은 6.1%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의 70%가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유입되며, 전국구 대학으로 부상하였다.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신입생 4명 중 3명이 타지역 학생으로 분석되면서, 국립군산대학교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장호 총장 취임 직후인 2022년부터 변화에 신속

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 방식의 교육혁신 시스템인 KAMS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대규모 무학과 모집 및 전과/FREE 시스템 도입 △산업체-대학 교육과정 공동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소학위(MD)기반 기업채용 연계 공유전공 △입학 학과와 무관하게 공부한 대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업연계 융복합 학사학위 과정(MCD) 도입 △편입학 모집단위 광역화 선제적 시행(자율전공학부) △코-티칭(Co-teaching) 기반 특성화 단과대학 재편 △정주형 외국인 우수 유학생 양성 위한 2+2 현장실습 기반 채용연계 공유전공 등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이차전지·에너지학부를 신설해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학과 신설을 기반으로 모집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집정원을 축소하고 있는 타 대학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외에도 AA제도(아카데미 어드바이저 시스템), 산업체와 협력해 문제 해결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AB(Industry Advisory Board) 및 IC-PBL 시스템(IC-Problem based learning/기업연계 문제중심수업)을 도입,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실제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미래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장호 총장은 대학 재정 수입 규모를 약 40% 정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학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수주에도 박차를 가했다. 지역연계 복합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 RS 에너지신산업 중심대학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다수 선정되며 대학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대상 새로

운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G-SEED, 이다-프로젝트 등)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회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하며 노사 화합의 모범 사례도 만들었다.

이장호 총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는 글로벌대학 및 리이즈 사업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한 단계 점프업하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구성원 모두가 일상의 업무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톡톡(Talk Talk)한 청렴생활’

전북교육청, 청렴 소식지 창간 도내 교육공공체 소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 소식지 ‘톡톡(Talk Talk)한 청렴생활’을 창간했다.

이에 따르면 톡톡(Talk Talk)한 청렴생활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공공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소식지에는 △전북교육청 반부패·청렴시책 △청렴 관련 법률 정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청렴사례 등을 담아 자연스럽게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간호에는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담아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청렴정보를 익힐 수 있는 청렴퀴즈 등 교육가족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영 감사관은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시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청렴소식지를 발간하게 됐다”며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톡톡(Talk Talk)한 청렴생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모든 시군서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전북교육청, 31일부터 '지역별 대면·화상 진학상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월 31일부터 12월까지 분청 및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 대면·화상 진학상담’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진학상담은 요일별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이뤄지며, 도내 초·중·고교 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별 상담 장소는 전주교육지원청 영계교육원 2층, 군산교육지원청 영계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3층 진로진학상담실, 정읍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남원교육지원청 1층 대입지원실, 김제교육지원청 3층 진로체험센터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www.jee.go.kr/jrno>) ‘대입대면상담 신청’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월 1회에 한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에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팀 교사 50명이 참여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지참하면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많은 학생들에게 진학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상상담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대면 동일하며, 화상상담 신청자는 줌(Zoom)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최근 이 중등교육과장은 “충만한 대입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별 상시 대면·화상 진학상담을 연중 실시하게 됐다”며 “상반기 운영 예정인 6개 권역별 진로·진학센터와 함께 24시간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세계 학문 무대에서 빛나... QS 평가 순위 상승

수리학·석유공학 세계 100위 이내 이름 올려 '두각' 약리학 등도 새롭게 순위에도 포함... 연구 경쟁력 입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년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평가에서 자연과학과 공학기술,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번 평가의 5개 대주제 중 3개 분야에서 순위권에 포함됐고, 55개 세부 분야에서도 15개가 발표 순위권에 포함됐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1,561개

대학)보다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는 △학계 평판 △기업계 평판 △논문 인용 수 △H-INDEX(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 △해의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는 이번 평가에서 15개 학문 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하며 지난해(11개 분야)보다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수리학과 석유공학이 세계 10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고, 약리학과 경제·계량경제학도 새롭게 순위에도 포함되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위가 올랐다.

이는 전북대가 수행 중인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평가된다. 글로벌대학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위권 학문 분야 5개, 200위권 학문 분야 4개 진입을 목표로, 올해의 중간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양오봉 총장은 “세계 순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학문 분야가 늘어나고, 기존 학문 분야의 순위도 상승한 것은 전북대의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학 혁신과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임기 내 최소 5개 이상의 학문 분야를 세계 100위권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싱가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단기 연수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17~21일 5일간 싱가포르 국립대학인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이하 TPC) 호텔관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기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TPC 학생 23명과 인솔 교수 2명이 함께 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주대학교 및 전주시 소재의 전공과목 수강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 1:1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연수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권역 4개 대학과 RISE 구축·협업 위해 '맞손'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7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3층 리빙룸에서 군장대학교(총장 이진숙),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진)과 전북권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군장대학교 이진숙 총장, 이진엽 RISE 사업단장, 원광보건대학교 백준출 총장, 임재현 RISE 사업단장,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부총장을 비롯한 4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력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대학은 △주



전주비전대학교는 17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3층 리빙룸에서 군장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주기전대학과 전북권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력산업 밀착형 인재 양성 및 지식산업 체계 구축 △대학 창업·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해의 우수인재 유치 및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 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J-커뮤니티 캠퍼스 협업체계 구축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

점 마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리빙룸 활성화 △로코노미 거점 조성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대학과 초·중·고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강화 등에서 향후 5년간 협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학생생활교육·위기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20일 나흘간 초초내내 시청 각실에서 학생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장 및 교감, 업무담당 교사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각급 학교의 학생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역량을 높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과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생명 지킴이 교육 확대 운영 방안 △

사별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페덱서) 현황 및 예방 방안, 사이버 도박의 경향성 이해 및 예방 방안 등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 변화가 있는 학교 단위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지침 및 전북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내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증가할 경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학생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1일까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현장 점검 주간'

전북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운영... 애로 발생시 해결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함께 진행되는 이번 현장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는 AIDT를 도입한 학교를 방문해 시스템 상의 문제 등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 13일 군산남초등학교와 14일 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AIDT 운영 중 AIDT 플랫폼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 해당 내용을 교육부 및

해당 교과서 업체와 공유했다.

중·고교 및 3~4학년 복식학급에서의 AIDT 활용 수업도 점검,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AIDT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선호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은 AIDT를 도입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AIDT 활용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개별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